

# 보성군, 곡우 햇차 수확... '말차'로 제2부흥기 시동

**'우전' 채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88억 투입 가공시설 현대화 박차**  
**성심당 등 대형 유통망 연계 강화**

대한민국 차(茶) 산업의 심장부인 보성군이 곡우를 맞아 최고급 햇차 수확에 나서며, '말차'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24절기 중 여섯번째 절기인 곡우(穀雨·4월20일)를 기점으로 보성 전역의 차밭에서 햇차 수확이 본격화됐다.  
곡우 전후로 채엽하는 첫잎은 향과 맛이 가장 뛰어난 최고급 녹차 '우전차'의 원료가 되며, 보성 차 산업의 한 해 농사를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다.

보성군은 현재 570여농가가 797ha 규모의 재배 면적에서 연간 5천~6천t의 첫잎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차 주산지다.

군은 이러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을 시도하며, 기존 잎차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음료, 제과제빵, 기능성 식품 등 활용도가 높은 '말차(분말차)'를 핵심 품목으로 육성해 산업의 외연을 넓힐 방침이다.



지난 20일 24절기 중 여섯번째 절기인 곡우를 맞아 보성군 차밭에서 작업자들이 햇차를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실제 보성말차의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군은 성심당, 더벤티 등 국내 유명 식품기업 및 카페 프랜차이즈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말차를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대거 상품

화하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급 보성말차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럽, 미국, 호주 등으로의 수출 길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군은 이 같은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총 80억원 규모의 '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광막 및 비즈밀 확충 등 고품질 말차 생산 기반 고도화에도 8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현재 보성 차 농가에서는 어린 첫잎 수확과 함께 말차 생산의 핵심인 차광 재배가 한창이며, 햇차 출하에 따른 농가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곡우 햇차 생산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2회 보성다향대축제'와 연계돼 보성녹차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곡우는 보성 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시기"라며 "K-푸드의 열풍 속에서 보성말차를 글로벌 1위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곡성군 이장·상인·유관기관 '청년도전' 돕는다

**지역사회 협력망 탄탄...진행 순조**  
**내달 취·창업 맞춤 프로그램 운영**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곡성군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지역사회의 총출력 협력망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 상인 90여명을 비롯해 마을 이장단, 유관기관 등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발적인 홍보와 숨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은둔형 청년들을 찾기 위해 이장단 회의를 직접 방문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곡성군 미래교육재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하집(JOB)센터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연계망을 구축했다.  
상인들 역시 가게에 포스터를 부착하며 청년들의 든든한 응원권을 자처하며, 그 결과 현재까지 만 34세 이하 구직단념 청년과 '지역특화 청년' 제도를 활용한 12명 등 총 16명이 참여를 신청해 1대1 심층 사전 상담을 받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군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끌



곡성군 일하집(JOB)센터는 최근 전남과학대학교를 찾아 청년 지원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곡성군 제공〉

어릴리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에너그램과 비폭력 대화 등을 활용한 자신감 회복 교육을 시작으로 재무관리, 공간 정리 등 실생활 자립을 돕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인공지능(AI) 활용, 퍼스널 브랜딩 등 최신 고용 트렌드를 반영한 취·창업 실무 교육도 병행된다.

아울러 문화지도 곡성 등 지역 단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수강생 모집

**내달 8일까지 오디션 접수**  
**정명훈·KBS교향악단 협연**

여수시가 지역 클래식 꿈나무들을 적극 발굴해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특별한 전문 예술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여수음악제와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제10회 여수음악제 음

악학교' 수강생을 공개 모집한다.  
오디션을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선발된 인재들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KBS교향악단과 연계된 체계적인 클래식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수강생들은 KBS교향악단 전·현직 단원들이 참여하는 1대1 및 그룹 레슨 형태의 '마스터클래스'를 이수한다.  
특히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직접 이끄는

오케스트라 리허설에 참관해 거장의 음악적 해석을 현장에서 배우는 기회도 얻는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예울마루 등에서 열리는 제10회 여수음악제 폐막 공연 등 공식 무대에 올라 KBS교향악단과 합동 연주를 펼치며 정식 데뷔전을 치른다.  
이밖에 참가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여수음악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음악제 관계자는 "정명훈 지휘자와 교감하는 흔치 않은 무대인 만큼, 지역 인재들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하는 값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고흥군 '제32기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

**24일까지 21명 맞춤형 교육**  
**AI 홍보·스마트팜 현장 학습**

고흥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안정적인 지역 사회 융화를 돕기 위한 맞춤형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예비 귀농인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기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까지 5일간 총 3시간에 걸쳐 초기 정착에 필수적인 이론 및 현장 학습을 병행해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산물 홍보 기법을 비롯해 농작업 안전 보건, 치유 농업의 이해, 마을 원주민과의 갈등 관리, 재무 관리 전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편성됐다.

또한 교육 기간 중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 작물 재배지 등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학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실천 감각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귀농·귀촌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에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장성도서관,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은 21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고 밝혔다.  
독서·토론·글쓰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높이고, 비경쟁식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성중앙·진원·진원동·삼서·북이초등학교와 장성백암·장성항동중학교 등 총 7개 학교 15개반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년별 수준을 반영한 주제 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 기법을 적용해 모든

학생이 토론의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처음에는 토론이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뒤 글로 정리하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독서·토론·글쓰기 수업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담양군,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 성료

담양군은 "최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실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실습 위주로 꾸러졌으며, 참가자들은 염도계를 활용한 나트륨 측정, 저염·저당 건강 간식 만들기, 일상 속 근력 운동 및 스트레칭 등을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혔다.  
또한 군은 참가자 전원에게 기초 건강 측정과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담양사랑병원, 담양우리안과)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더했다.  
허복심 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화순군 '다육가드닝 전국대회' 우수작 10점 선정

**'여전히 설렘' 등 최우수상 차지**

화순군은 "최근 '2026 다육가드닝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2026 화순 봄꽃 축제'와 연계해 준비된 이번 대회는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다육식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첫선을 보인 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다육식물 애호가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군은 시상식을 통해 2개 분야 총 10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사진〉  
최우수상은 다육가드닝 부문 '여전히 설렘'

과 다육아트 부문 '그대 맘에 품당 화순11경'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은 '다육 너 참 예쁘다'(가드닝)와 '백야산 하늘길, 인연을 잇다'(아트)가 수상자의 기쁨을 누렸다.  
군은 최우수상(분야별 각 200만원)과 우수상(각 100만원)을 비롯해 인기상·컬러상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며 다육애호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웠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돼 대회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반려식물 산업 육성과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